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7, No.1 (Jan. 2007) pp.39-49

고려불화를 통해 본 현실세계 인물의 복식에 표현된 선(襈)의 유형분류

옥 명 선* · 박 옥 련+ · 이 주 영**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A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Seon(襈) Expressed in Costume of Worldly Figures Illustrated in Koryo Buddhist Paintings

Myung-Sun Ok* · Ok-Lyun Park+ · Joo-Young Lee**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ng University**
(2005. 7. 4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types of Seon(襈) which was expressed in costume of worldly figures illustrated in Koryo Buddhist paintings.

The types of 'Seon' are largely classified into Standard and Application types. Among these types, standard type are reclassified into the types of same color and no pattern, different color and no pattern, same color and pattern and different color and pattern. And Application type is reclassified into the types of Buseon(副襈), wrinkle, feather and leaf.

Regarding styles of Seon, most costumes for men and women used Seon of Standard style, especially that of different color and no pattern style. In addition, costumes for men more often used Seon of Standard style, especially that of different color and pattern style. While, costumes for women more often used Seon of application style, especially that of feather or wrinkle style. Seon was practically used to reinforce the edge of clothes, whether for men or women, and at the same time, and at the same time decorated the clothes brilliantly.

In regard to aesthetic qualities of clothes in accordance with types of Seon, clothes having Seon of same color and no pattern type was natural and simple and different color and no pattern type, artificial and simple, same color and pattern type, natural and brilliant and different color and pattern type, artificial and brilliant. And costumes having Seon of Buseon type was decorative and simple, wrinkle type, sophisticated and dynamic, feather type, voluminous and dynamic and leaf type, brilliant and dynamic.

Key words: Koryo buddhist paintings(고려불화), worldly figures(현실세계 인물), costume(복식), Seon(襈), types classification(유형분류)

Corresponding Author: Ok-Lyun Park, E-mail: ylpark@ks.ac.kr

Ⅰ. 서언

본 논문은 이미 발표한 아미타여래도와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한 연구[1]의 후속으로서, 고려불화에 보이는 여러 복식 중 현실세계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고려불화에는 불교세계와 현실세계가 모두 그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 착용 복식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여래나 여러 보살 등 불교세계의 인물이 착용한 복식이고, 다른 하나는 왕, 왕비, 관리, 궁중女官, 귀부녀, 승려 등 현실세계의 인물이 착용한 복식이다. 다만 불화 인물 중 諸王, 神將, 天女 등은 불교세계의 인물이지만,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현실세계에서 왕이나 백관, 무장, 귀부녀 등이 입은 복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현실세계 인물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한다.

고려불화의 복식에 표현된 선장식은 삼국시대에 비해 문양과 색상조합, 장식기법 등이 매우 화려하고 다양했다. 특히 현실세계의 복식을 보면, 왕비, 천녀, 신장 등이 입은 半臂와 甲衣 등 반소매 의복의 수구와 남녀가 입은 치마의 밑단, 그리고 남자가 입은 甲身, 被膊의 가장자리 등에 선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주름잡은 천, 꽃잎모양의 천, 깃털 등이 화려하게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려불화 속에 표현되어 있는 현실세계의 복식에는 선이 의복을 장식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고려시대의 복식유물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고려불화를 통해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다양한 종류의 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불교세계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에 관하여 최영순, 김진희, 지미령은 보살복식에 관해 연구하였고,[2] 고승희, 임명자, 임영주, 박옥련, 정현주는 불화복식에 표현된 문양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3] 옥명선·박옥련·이주영은 아미타여래도와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4] 현실세계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에 관하여는 채금석, 김진성, 임명미는 고려불화에 나타난 복식에 관해 연구하였고,[5] 김문숙, 김문자, 김문숙·이순원은 고려시대 일반복식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6] 강인구, 안명숙, 유희경, 권영숙·이주영·장현주는 고려시대 복장유물에 관하여 연구하였다.[7]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보살복식, 불화복식에 표현된 문양, 불화에 나타난 복식, 여래와 여러 보살 등의 불교세계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한 연구와 현실세계의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현실세계의 복식과 관련된 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문양과 색상조합, 응용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남·녀 복식을 중심으로 유형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불화 중에서 색상을 알 수 없는 벽화와 經畫는 제외하였다.

Ⅱ.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 인물의 역할과 복식

고려불화에 나오는 현실세계의 인물은 크게 남자의 경우 왕, 제왕, 관리, 신장, 승려 등으로 분류되고, 여자의 경우 왕비, 천녀, 궁중여관, 귀부녀 등으로 분류된다.

1. 남자

왕은 현실세계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통치자이다. 畵面에 왕이라는 표기가 있거나, 동일한 복식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쓰고 있는 관이 왕을 상징하는 면관이거나, 梁의 수가 많은 양관을 착용한 인물을 말한다. 왕은 주로 교령의 대수포에 중단, 폐슬, 패옥, 군, 패수, 옥환수, 방심곡령, 석 등으로 구성하여 착용하고 있다.

제왕은 불교세계에서 말하는 여러 왕들로서, 十王, 優塡王, 無毒鬼王 등을 말한다. 시왕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지른 죄를 심판하는 열 명의

왕으로, 秦官大王, 初江大王, 宋帝大王, 五官大王, 閻羅大王, 變成大王, 泰山大王, 平等大王, 都市大王, 五道轉輪大王 등이 있다.[8] 우전왕은 알라하바드 지역에 있는 拔沙國 拘睒彌城의 왕이며,[9] 무독귀왕은 36위 귀왕의 하나이다. 이들은 주로 양관이나 원유관을 쓰고, 대수포에 주름형의 군과 폐슬을 착용하고 있다.

관리는 왕과 제왕이 거느리는 여러 신하들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복두를 쓰고, 단령의 대수포에 군을 착용하고 있다.

신장은 부처님의 正法을 수호하고 사찰을 호위하는 수호신들을 말하며, 특히 무장형의 여러 존상을 '外護神衆' 이라고도 부른다.[10] 고려불화에 신장상이 표현되는 경우는 불법설도의 권속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 또는 聽聞衆으로서 화면의 가장자리나 윗면에 무기를 든 모습으로 표현되며, 대부분 四天王과 8部衆이 묘사되어 나타난다. 사천왕은 사왕천의 네 왕으로, 도리천의 제석을 섬기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 동쪽에 있는 持國天, 남쪽에 있는 增長天, 서쪽에 있는 廣目天, 북쪽에 있는 多聞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인도에서는 귀족의 복식을 한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11] 중국과 우리나라로 전파되는 동안 武人像으로 변화되어 나타났다.[12] 8부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8종의 신으로 하늘, 용, 야차, 아수라, 간달바, 긴나라, 가루라, 마후라가 등을 말한다. 신장은 주로 투구에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무장복에 해당한다.

승려는 불교 교리를 익히면서 이를 실천하는 출가수행자들을 말한다. 이들이 입는 옷을 僧服이라 하는데,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가사 하나만 걸쳤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기후 여건상 가사 안에 장삼을 착용하게 되었다. 고려의 승복은 偏衫, 裳, 袈裟로서 일습을 갖추었는데, 직급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하였으며 大德 이상만이 가사를 착용하였다.[13]

2. 여자

왕비는 현실세계에서 왕의 아내를 말한다. 왕비는 주로 운견과 대수포에 중단, 유, 대대, 裙, 폐슬, 紳, 석 등을 착용하고 팔꿈치 부위에 깃털이나 주름장식이 달린 반비와 주름형의 군을 착용하고 있다.

천녀는 梵天, 帝釋天, 摩利支天, 秦樂女 등을 말한다. 범천은 우주의 창조신인 브라만을 신격화한 것으로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제석천은 벼락을 신격화한 것으로 인도의 베다 신화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들은 불교에 귀의하여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14] 일반적으로 범천과 제석천은 신장상으로 분류되나, 고려불화에서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몸에는 각종 瓔珞을 걸쳐 장식하고, 얼굴 표정이 부드럽고, 신체의 굴곡이 유연하고, 몸매가 날씬하다는 점에서 여성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천녀로 분류하였다. 마리지천은 所依經典[15]인 『摩利支天經』에 의하면 불꽃을 신격화한 것으로 장애를 없애고 이익을 얻게 한다는 신으로 각 손에는 지물을 들고 있다.[16] 진악녀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주로 高髻로 結하고 보주식 화관에 운견과 대수포를 착용하고 팔꿈치 부위에 깃털이나 꽃잎, 주름 등의 장식이 달린 반비와 주름형의 군을 착용하고 있다.

궁중여관은 궁중에서 봉직하는 여관들로서 품계가 있는 궁녀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교령의 대수포에 주름형의 군을 착용하고 있다.

귀부녀는 신분이 높은 상류층의 부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상의에는 교령의 대수포나 유를 입고, 그 위에 깃털이나 주름 장식이 달린 반비나 褙를 둘렀으며, 하의에는 군이나 상을 착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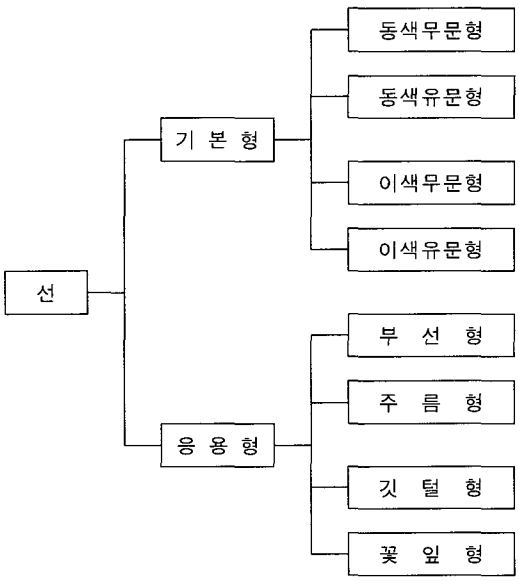
Ⅲ. 유형분류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대략 170점으로 추정되는데, 현실세계의 복식을 고찰할 수 있는 圖像은 관경변상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수월관음도, 지장시왕도, 나한도 등 32점이다. 이 중 색상과 문양이 명확한 도상은 30점으로 선이 표현된 복식을 입고 있는 인물은 190명이며, 이들이 입고 있는 복식자료 340점을 선별하여 분석·고찰하였다. 단 한 도상에서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1명으로 간주하였다.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선

의 유형을 아미타여래도와 수월관음도, 송대의 선에 관하여 연구한 전보[17]에 준해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본형은 同色이나 異色의 선 위에 문양을 가하지 않거나, 또는 동색이나 이색의 선 위에 문양을 가하여 장식한 유형이다. 바탕천과 선의 색상조합, 문양의 유무에 따라 동색무문형, 동색유문형, 이색무문형, 이색유문형으로 분류된다. 선에 문양을 넣을 때 그 장식기법은 불화라는 특성상 고찰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의 유물을 통해 볼 때 상침, 선치기, 금박, 자수, 채색 등으로 추정된다. 응용형은 기본적인 선을 응용하여 부선을 달거나, 또는 의복의 가장자리에 선의 느낌이 나도록 주름잡은 천, 꽃잎모양의 천, 깃털 등을 가한 유형이다. 응용형태에 따라 부선형, 주름형, 깃털형, 꽃잎형으로 분류된다.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선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襈의 유형분류

1. 기본형

1) 동색무문형

동색무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하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는 유형이다.

〈그림 2〉는 1312년(忠宣王 4)에 제작된 일본 大恩寺 소장 觀經序分變相圖로 『觀無量壽經』에 설파된 摩竭陀國王舍城의 비극을 그린 그림이다. 頻婆娑羅王이 입고 있는 녹청색의 大袖袍로, 수구에 바탕색과 동일한 無紋의 선이 둘려져 있는데, 이는 실제 의복에서는 가장자리 처리를 제천을 꺽어 넣거나 덧대어 선의 효과를 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형은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으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유연하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고 소박하다.[18]

〈그림 2〉 동색무문형(조복의 대수포; 高麗時代의 佛畵, p. 290)

2) 동색유문형

동색유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하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유형이다. 문양은 대부분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바탕천의 문양과 동일하거나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그림 3〉은 14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圓覺寺 소장의 地藏菩薩圖로 無毒鬼王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입고 있는 홍색의 폐슬 단에는 모란당초문이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유형은 동색무문형과 같이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으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유연하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고 화려하다.

〈그림 3〉 동색유문형(폐슬; 高麗時代의 佛畵, p. 231)

3) 이색무문형

이색무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다르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는 유형이다.

〈그림 4〉는 1310년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大德寺 소장의 수월관음도로, 왕이 착용한 관모는 고려 특유의 각형 梁冠이며, 금박무늬가 화려한 자황색의 대수포는 깃과 수구에 녹색의 선이 둘러져 있다.

이 유형은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선명하며, 금니에 의한 화려한 미는 연출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이미지가 인위적이고 소박하다.[19]

〈그림 4〉 이색무문형(조복의 대수포; 高麗時代의 佛畵, p. 156)

4) 이색유문형

이색유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다르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유형이다. 문양은 바탕천의 문양과 달리 별도로 묘사되어 있으며, 대부분 금니나 채색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5〉는 14세기 중반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華藏院 소장의 地藏十王圖이다. 시왕이 입고 있는 대수포로, 홍색이고 깃과 수구에 흑색으로 선이 둘러져 있으며, 여기에 당초문이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유형은 이색무문형과 같이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선명하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인위적이고 화려하다.[20]

〈그림 5〉 이색유문형(대수포; 高麗時代의 佛畵, p. 250)

2. 응용형

응용형 선장식은 지금까지 일부학자들에 의해 '如意襞 장식'으로 표현되어 왔다.[21] 그런데 '如意襞'이라는 용어는 심종문이 『中國古代服飾研究』에서 '水雲무늬 모양의 주름'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한 '如意水雲紋襉襞'이라는 표기에서 비롯되었다.[22] 원전의 '如意水雲紋襉襞'은 인용하는 과정에서 '如意袖紋間襞'으로 誤記되었을 뿐만 아니라,[23] '여의습'이라는 용어로 축약되어 잘못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여의습은 원래 수운무늬모양 주름의 선장식을 표현하는 용어였으나, 주름형, 깃털형, 꽃잎형 등 여러 가지 응용된 선장식을 모두 설명하는 용어로 잘못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름형, 깃털형, 꽃잎형 등의 선장식을 모두 '여의습'이라고 표현하였던 기존의 분류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유형을 용융형 선장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응용형 선은 부선형을 제외하고는 선 자체에 무늬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색에 있어서 이색과 동색이 모두 사용되었다.

1) 부선형

부선형은 기본형의 선을 본선으로 하고, 본선의 양쪽이나 한쪽에 다시 선을 대어 장식한 것으로 본선과 같은 색이나 다른 색을 사용하여 선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6〉은 14세기 전반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Cleveland Museum of Art 소장의 釋迦三尊圖이다. 阿難尊者가 어깨에 두르고 있는 가사는 황갈색이며, 가장자리에 황갈색의 본선이 둘러져 있고 여기에 청색의 부선이 더해져 있다.

부선형의 선이 들어간 의복은 제물선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표현된 본선에 채색으로 된 부선이 더해져 전체적인 이미지가 소박하고 장식적이다.

〈그림 6〉 부선형(가사; 高麗時代의 佛畵, p. 24)

2) 주름형

주름형은 장방형의 긴 천에 주름을 규칙적으로 잡아 선의 효과를 낸 유형으로(그림 7), 주름위에 구슬장식을 단 것도 있다(그림 8). 이 유형은 주로 반소매 의복의 수구나 치마[裙]의 밑단에 사용되었다.

〈그림 7〉는 1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西福寺 소장의 觀經序分變相圖이다. 韋提希왕비가 입고 있는 반비로, 홍색이고 반소매의 수구에 흰색 장방형의 긴 천에 규칙적으로 주름을 잡아 달았다. 〈그림 8〉은 14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圓覺寺 소장의 地藏菩薩圖로 無毒鬼王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입고 있는 녹색의 군의 밑단에는 주름잡힌 별도의 천을 덧대고 그 위에 구슬을 달아 매우 입체적으로 장식하였다.

이러한 주름형은 주로 반비의 수구와 치마의 밑단에 사용되었다. 〈그림 9〉는 중국에서 사용된 주름형의 예로서 우리나라와 형태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그림 7〉 주름형(반비; 高麗時代의 佛畵, p. 293)

〈그림 8〉 주름형(裙衣; 高麗時代의 佛畵, p. 231)

〈그림 9〉 중국의 주름형(東晉; 中國服飾 5000年(上), p. 141 : 唐; 한국의 복식문화(Ⅰ), p. 411 : 宋; 한국의 복식문화(Ⅰ), p. 416)

이 유형은 주름의 입체적인 볼륨감에 의해 의복의 가장자리가 풍성하고 유연하며, 주름간격이 일정하게 잡혀져 있는 위에 움직이는 구슬을 더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가 정교하고 동적이다.

3) 깃털형

깃털형은 길고 짧은 깃털모양을 불규칙적으로 달기도 하고, 모양이 일정한 짧은 깃털을 규칙적으로 달기도하여 선의 효과를 낸 유형이다. 고대 회화속에 신선을 그릴 때 羽翼狀을 갖추고 있으므로, 깃털형태를 옷에 다는 것은 스스로 신선이 되고자하는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그림 11).[24] 깃털은 주로 翡翠毛와 孔雀尾를 사용하였다.[25]

〈그림 10〉 깃털형(반비; 高麗時代의 佛畵, p. 156)

〈그림 11〉 깃털형(唐; 中國古代服飾史, p. 181)

〈그림 10〉은 1310년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大德寺 소장의 수월관음도로, 왕비가 입고 있는 반비는 황색이고 반소매의 수구에 녹색의 깃털모양을 불규칙적으로 달아 장식하였다.

이 유형은 깃털모양의 입체적인 볼륨감에 의해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입체적이고 동적이다.

4) 꽃잎형

꽃잎형은 꽃잎모양의 작은 천을 규칙적으로 달아 선의 효과를 낸 유형으로, 각 꽃잎마다 구슬장식을 단 것도 있다(그림 12). 꽃잎은 주로 연꽃잎 모양을 사용하였다(그림 13).

〈그림 12〉는 14세기 초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聖澤院 소장의 帝釋天圖이다. 천녀와 같은 모습의 제석천이 입고 있는 반비는 황색이고 반소매의 수구에 꽃잎모양의 작은 천을 규칙적으로 달고, 각 꽃잎마다 구슬을 달아 장식하였다. 꽃잎형 옆으로 깃털모양이 보이는데 이는 꽃잎과 깃털을 함께 사용하여 더 화려하게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림상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림 13〉은 洛陽龍門賓陽洞에서 발견된 皇后供養圖로 중국 북위시대의 귀부녀 모습이다.[26] 귀부녀가 입고 있는 반비로, 팔꿈치 부위에 연꽃잎을 규칙적으로 달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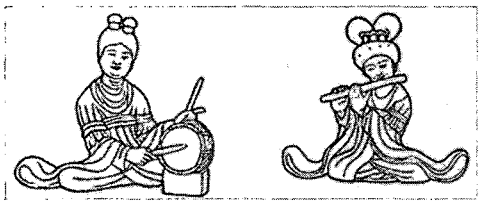
이 유형은 꽃잎모양의 입체적인 볼륨감에 의해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화려하고 동적이다.

〈그림 12〉 꽃잎형
(반비; 高麗時代의
佛畵, p. 258)

〈그림 13〉 꽃잎형
(반비; 中國服飾5000年
(上), p. 157)

한편, 중국자료를 보면 꽃잎모양이 네모모양을 한 유형도 보인다(그림 14). 이는 작은 천에 의한 입체적인 볼륨감에 의해서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단정하고 동적이다.

〈그림 14〉는 五代의 四川成都 王建墓石棺에 조각된 무희들이다. 무희가 입고 있는 반비의 반소매 상박부분에는 네모모양의 작은 천에 水雲무늬모양의 주름을 잡아 규칙적으로 달아 장식하였다.[27]



〈그림 14〉 꽃잎형(반비; 中國古代服飾研究, p.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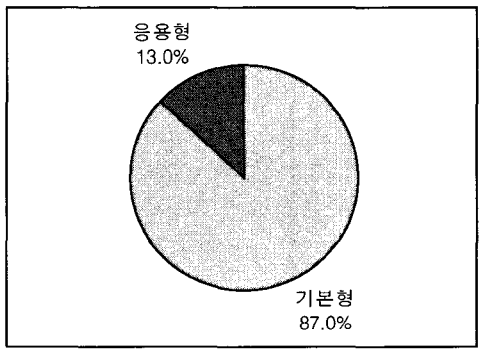
Ⅳ. 유형분포

1. 남자복식

선이 가해진 복식자료 총 340점 중 남자복식 254점을 중심으로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5〉와 같다.

〈표 1〉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 형		유형별 소계(%)	
기본형	동색무문형	14(5.5)	221(87.0)
	동색유문형	9(3.5)	
	이색무문형	110(43.3)	
	이색유문형	88(34.7)	
응용형	부 선 형	2(0.8)	33(13.0)
	주 름 형	24(9.4)	
	깃 털 형	7(2.8)	
	꽃 잎 형	0	
총 계		254(100)	



〈그림 15〉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표 1〉과 〈그림 15〉를 통해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254점 중 기본형이 221점, 응용형이 33점으로 기본형이 87.0%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응용형이 13.0%로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 중 이색무문형과 이색유문형이 각각 43.3%, 34.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응용형은 주름형이 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내며, 꽃잎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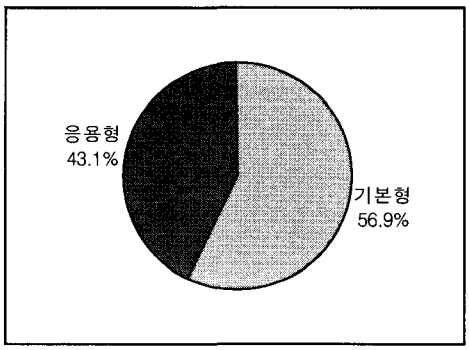
〈표 1〉에 의하면 선의 유형별 출현 순위는 이색무문형〉이색유문형〉주름형〉동색무문형〉동색유문형〉깃털형〉부선형 등이다. 즉 남자복식에 있어서 선은 주로 이색무문형과 이색유문형의 형태로 사용되었고, 다음은 주름형과 동색무문형, 동색유문형, 깃털형 등이 사용되었고, 부선형은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꽃잎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여자복식

선이 가해진 복식자료 총 340점 중 여자복식 86점을 중심으로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6〉과 같다.

〈표 2〉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 형		유형별 소계(%)	
기본형	동색무문형	3(3.5)	49(56.9)
	동색유문형	4(4.6)	
	이색무문형	38(44.2)	
	이색유문형	4(4.6)	
응용형	부 선 형	0	37(43.1)
	주 름 형	17(19.8)	
	깃 털 형	19(22.1)	
	꽃 잎 형	1(1.2)	
총 계		86(100)	



〈그림 16〉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표 2〉와 〈그림 16〉을 통해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여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86점 중 기본형이 49점, 응용형이 37점으로 기본형이 56.9%로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응용형이 43.1%로 다소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 중 이색무문형이 44.2%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응용형은 깃털형과 주름형이 각각 22.1%와 1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내며, 부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2〉에 의하면 선의 유형별 출현 순위는 이색무문형〉깃털형〉주름형〉동색유문형=이색유문형〉동색무문형〉꽃잎형 등이다. 즉 여자복식에 있어서 선은 주로 이색무문형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깃털형과 주름형으로 사용되었고, 다음은 동색유문형과 이색유문형, 동색무문형 등이 사용되었고, 꽃잎형은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부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의 남·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녀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선의 유형은 이색무문형임을 알 수 있고, 그 외 남자복식에는 이색유문형이, 여자복식에는 깃털형과 주름형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자복식에는 기본형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자복식에는 기본형과 함께 응용형이 많이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선은 남·녀 복식 모두에서 의복의 가장자리를 보강하는 실용적인 용도와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은 남자복식보다 여자복식에서 더 많이 장식화되고 응용되었으며, 응용형태도 주름형, 꽃잎형, 깃털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의복의 외관을 매우 화려하고 대담하게 장식하였다.

한편, 선은 고대에는 남녀, 노소, 귀천의 구별없이 모두에게 사용되었다.[28]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선은 비교적 낮은 계급의 의복에는 단순한 형태로 사용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왕실과 상류층의 의복에는 다양하고 화려한 형태로 사용되어 차이를 보인다. 즉 선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실용적인 기능보다 신분을 표시하거나 의복을 장식하는 기능이 더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언

고려불화에 보이는 현실세계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실세계의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은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분류된다. 기본형은 同色이나 異色의 선 위에 문양을 가하지 않거나, 또는 동색이나 이색의 선 위에 문양을 가하여 장식한 유형으로 바

탕천과 선의 색상조합, 문양의 유무에 따라 동색무문형, 동색유문형, 이색무문형, 이색유문형으로 분류된다. 응용형은 기본적인 선을 응용하여 부선을 달거나 의복의 가장자리에 선의 느낌이 나도록 주름잡은 천, 꽃잎모양의 천, 깃털 등을 가한 유형으로 응용형태에 따라 부선형, 주름형, 깃털형, 꽃잎형으로 분류된다.

2. 남·녀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분포를 보면, 남·녀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선의 유형은 기본형의 이색무문형임을 알 수 있고, 그 외 남자복식에는 기본형의 이색유문형이, 여자복식에는 응용형의 깃털형과 주름형도 많이 사용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선은 남·녀 복식 모두에서 의복의 가장자리를 보강하는 실용적인 용도와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선은 남자복식보다 여자복식에서 더 많이 장식화되고 응용되었으며, 응용형태도 주름형, 꽃잎형, 깃털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의복의 외관을 매우 화려하고 대담하게 장식하였다. 한편, 선은 고대에는 남녀, 노소, 귀천의 구별없이 모두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선은 비교적 낮은 계급의 의복에는 단순한 형태로 사용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왕실과 상류층의 의복에는 다양하고 화려한 형태로 사용되어 차이를 보인다. 즉 선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실용적인 기능보다 신분을 표시하거나 의복을 장식하는 기능이 더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선이 가해진 의복의 미적 특성을 보면 동색무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자연스럽고 소박한 미를 표현하고, 이색무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인위적이고 소박한 미를 표현하고, 동색유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자연스럽고 화려한 미를 표현하며, 이색유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인위적이고 화려한 미를 표현한다. 부선형이 들어간 의복은 장식적이고 소박한 미를 표현하고, 주름형이 들어간 의복은 정교하고 동적인 미를 표현하고, 깃털형이 들어간 의복은 입체적이고 동적인 미를 표현하며, 꽃잎형이 들어간 의복은 화려하고 동적인 미를 표현한다.

참고문헌

1)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에 표현된 襈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5(2), pp. 58-69.
옥명선, 박옥련 (2006). 고려후기 水月觀音圖 복식에 표현된 襈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6(1), pp. 70-80.

2) 崔永順 (1992). 韓國의 菩薩服飾에 관한 硏究 - 6~8세기 菩薩像과 高麗佛畵를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金眞熙 (1996). 高麗時代 地藏菩薩圖의 服飾에 관한 硏究. 東亞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지미령 (2001). 고려후기·조선전기 지장보살도의 복식 변천 연구.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고승희 (2000). 高麗佛畵의 紋樣 硏究.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林明子 (1984). 高麗佛畵에 나타나는 衣裳紋樣 硏究.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주 (1981). 高麗佛畵의 紋樣. 韓國의 美 7 -高麗佛畵-. 서울: 中央日報社, pp. 217-229.
박옥련 (1992).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衣裳에 나타난 文樣硏究. 한국의류학회지, 제16권 1호.
정현주(1990).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베일에 나타난 文樣 硏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 논문.
옥명선, 박옥련 (2006). 앞 논문.

5) 蔡今錫 (1988). 高麗佛畵에 나타난 高麗服飾의 考察 - 형태와 구조를 중심으로. 淑明女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金眞成 (1993). 高麗佛畵에 나타난 女人 服飾 考察. 高麗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임명미 (1994).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복식, 22, pp. 205-224.
임명미 (1994).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복식, 23, pp. 211-223.
임명미 (1995).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 복식, 26, pp. 221-232.

6) 김문숙 (2000). 고려시대 원간섭기 일반복식의 변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문자 (1998). 高麗時代 여인들의 襦·裳의 형태에 관한 硏究. 복식, 38, pp. 73-82.
김문숙, 이순원 (2001). 고려시대 일반복식의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p. 65-78.

7) 강인구 (1975).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국립박물관 미술자료 18호.
안명숙 (1986). 文殊寺 遺物 袍와 織物類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권 1호.
유희경 (1991). 1302년 아미타불복장 복식의 양식과 특성 - 1302년 아미타불복장유물의 조사연구. 온양민속박물관.
권영숙, 이주영, 장현주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복식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성보학술총서 1, 성보문화재연구원.

8) 홍윤식 (2002). 불화. 서울: 대원사, pp. 57-58.

9) 곽철환 (2004). 불교사전. 서울: 시공사, p. 527.

10) 김정희 (2002). 신장상. 서울; 대원사, p. 9.
11) 앞 책, pp. 28-29.
12) 문명대 (1977).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시론. 불교미술 3. 동국대학교박물관, p. 24.
13) 임영자 (1990). 한국의 종교복식 - 불교와 도교복식을 중심으로. 서울; 아세아문화사, pp. 93-94.
14) 김정희 (2002). 앞 책, pp. 17-20.
15) '所依本經'이라고도 하는데 각 종파에서 근본경전으로 의지하는 경전을 말한다.
16) 동국대학교박물관편 (2006). 동국대학교 國寶展-건학 100주년 기념 특별전. 동국대학교박물관, p. 29.
17)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 논문, pp. 60-62.
옥명선, 박옥련 (2006). 앞 논문, pp. 73-74.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6). 宋代 복식에 표현된 襳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6(3), pp. 116-128.
18)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 논문, p. 61.
19) 앞 논문, p. 61.
20) 앞 논문, p. 62.
21) 임명미 (1997). 한국의 복식문화(Ⅰ). 서울; 경춘사, p. 434.
임명미 (1994). 앞 논문, 복식, 22, p. 216.
韓國服飾圖鑑 (2005). 서울; KBS 아트비전, p. 245.
22) 沈從文 (1992).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p. 273.
23) 임명미 (1994). 앞 논문, 복식, 22, p. 216.
24) 周錫保 (2001).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 181.
25) 蔡今錫 (1988). 앞 논문. p. 159.
26) 中華五千年文物集刊편, 손경자역 (1995). 中國服飾5000年(上). 서울; 경춘사, p. 157.
27) 沈從文 (1992). 앞 책, p. 273.
28) 옥명선 (2004).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襳의 유형과 조형특성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